

濟州島住民의 經濟生活과 開發의 問題點에 대한 意識性向

金 恒 元*

I. 序 論

本稿는 필자의 博士學位論文 “濟州島住民의 正體性에 관한 研究”의 일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濟州島住民들은 韓半島와는 다른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 속에서 생활해오는 동안 육지와는 다른 그 무엇을 가지게 되었으리라는 예측이 된다. 따라서 <제주도 주민은 누구인가?>, <제주도 주민은 무엇인가?>, <제주도에 특이한것 또는 독특한 것은 무엇인가?>, <제주도 다운 것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주도 주민의 正體性에 관한 연구이다. 正體性(identity)이란 “변화나 相異性으로 부터 구별되는 同一性이며” “다양한 실예들 속에 있는 본질적이거나 포괄적인 성격의 同一性이고 人性的 單一性和 連續性이다.” 이 正體性이란 용어는 同一性, 連續性, 소속감 및 一體感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말이다.

따라서 제주도 주민의 正體性은 제주도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이며 제주도 주민이라는 集團性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과 集團境界가 지속하는 것이다. 本稿의 목적은 제주도의 經濟的 영역에서 제주도적인 特性을 찾아내어 經濟的 正體性的 有無를 밝혀보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意識性向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文獻調查研究와 經驗的 調查研究法이었으며, 文獻調查研究는 文獻調查와 內容分析法를 병행하였다. 經驗的 調查研究는 質問紙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觀察法과 面接法을 이용하였다. 質問紙法은 측정도구 101 문항을 만들어서 17개 지

* 師範大學 社會教育科 副教授

역주민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총계 11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실시하여 1016매를 회수하였다. 그 중 실제 분석대상으로 취급된 標集數는 902명이었다. 자료처리는 서울대학교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계치는 百分比(%)와 X^2 檢證이었다. 그리고 면접법은 準標準化面接을 하였으며 대상은 22명이었다.

그러면 제주도 주민의 경제생활과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意識性向을 조사하기 위하여 産業·經濟의 특징과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후에 경제생활과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의식성향 순으로 논의 하기로 한다.

II. 제주도의 産業·經濟의 特徵과 개발의 問題點

1. 産業·經濟의 特徵

제주도의 산업·경제의 특징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중심이고 농업은 田作중심의 농업이며 감귤 등의 果樹農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경영방식도 해안지역은 集約的 경영을 하며 중산간 지역은 粗放的 경영을 하고 있다. 해안지역에서는 해녀들의 경제활동이 가계수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목축업에서 특이한 것은 마을 공동목장제이다.

2. 濟州島 開發의 問題點

제주도의 개발은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연경관의 훼손과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의 파괴 및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 外地人에 의한 부동산 투기와 원주민의 被害意識增大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III. 經濟生活에 대한 意識性向

제주도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의식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녀활동은 자연스런 삶의 방식>, <해녀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음>, <해녀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긍지>, <해녀들의 잠수활동에 대한 긍정적 시각>, <형식 보다 실리 중시>, <여자들이

밭에서 주로 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음>, <제주도 사람들의 근면성>, 및 <마을공동목장제에 대한 반응> 등 8개 문항이 제시되었다. 차례대로 논위하기로 한다.

(1) 海女活動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대부분의 주민들이 해녀활동은 제주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런 삶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82.0%), 부정적인 반응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海女들이 經濟權을 가지고 家長의 역할을 하는데 대한 반응

<나는 제주도 해녀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家長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긍정적 반응이 64.2%, 부정적 반응이 19.9%,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15.9%로 나타나고 있다.

(3) 海女들이 經濟活動에 대한 금지

<나는 제주도 해녀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금지를 느낀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반응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67.4%, 부정적 반응이 9.4%,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23.2%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71.9%)가 여자 (62.3%)보다, 학력별로는 고졸이상 (71.9%이상) 이 비교적 높게, 고재 (53.4%)가 가장 낮게, 세대별로는 50대 (83.2%)가 가장 높게, 60대이상 (79.7%)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대 (70.2%) 이하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면접결과를 보면, 해녀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20대의 남성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비해서 여자들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느끼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30대이상은 하나의 삶의 방식일 뿐이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4) 海女들의 잠수활동에 대한 긍정적 시각

<나는 해녀들이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한 잠수활동은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전체 반응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70.2%, 부정적 반응이 12.2%,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17.6%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75.3%)가 여자 (64.6%)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학력별로는 고졸이상 (74.3%)이 가장 높게, 국졸이하 (72.3%)와 중졸 (70.8%)이 비교적 높게, 대재 (63.4%)가 비교적 낮게, 고재 (60.3%)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는 50대 까지는 세대가 올라갈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10대 60.4%, 30대 71.7%, 50대 77.9%).

면접결과에 의하면,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한 해녀들의 잠수활동을 20대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 30대도 부정적인 반응이 큰 것으로 보인다.

(5) 제주도 주민들은 形式 보다 實利를 重視

<나는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은 형식 보다는 실리를 중시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반응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73.4%, 부정적 반응이 9.2%,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17.4%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는 세대가 올라갈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져서 10대가 60.4%인데 비해서 30대가 71.7%, 59대가 84.2%로 나타나고 있다.

(6) 제주도 여자들이 밭에서 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느낌

<나는 제주도에서 여자들이 밭에서 주로 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반응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88.9%이고 부정적 반응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제주도 주민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이 밭에서 주로 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반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며 대졸 이상이 비교적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이 긍정적 반응이 높게, 20대 이하가 비교적 높게, 30대와 40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출생지·성장지별로는 제주에서 출생·성장해서 계속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제주도 출신으로 육지에 산 일이 있는 사람이 높게, 육지에서 출생·성장해서 10년 이상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비교적 높게, 10년 미만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제주도에서 여자들이 밭에서 주로 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이 가장 높고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집단은 국졸이하이고 50대 이상이며 북군지역에 거주하고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7) 제주도 사람들의 근면성

<나는 제주도 사람들은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아주 부지런하다고 생각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반응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75.1%, 부정적 반응이 13.5%,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11.4%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국졸이하 (92.4%)가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대재 (64.3%)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는 세대가 올라갈수록 긍정적 반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10대 66.7%, 30대 74.9%, 50대 87.4%). 종합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매우 높고 강한 집단은 국졸이하이고 50대 이상이며 북군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마을 共同牧場制에 대한 認知度

<나는 제주도의 마을 공동목장제는 특이한 제도이고 좋은 것 같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반응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73.3%,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22.7%, 부정적 반응이 4.0%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 보다 긍정적 반응이 매우 높게, 학력별로는 국졸과 대졸이상이 높게, 고재가 가장 낮게, 세대별로는 세대가 올라갈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졸 이하이고 50대이상이며 북군지역과 동부지역에 거주하며 공무원과 농어민이 매우 높고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IV. 제주도 開發의 問題點에 대한 意識性向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많은 토지가 외지인에게 넘어간 것에 대한 서운한 느낌>, <제주도의 경제를 타지방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 <관광산업의 발달에 따른 미풍양속이 많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소수인에게 유리> 등 4개 문항이 제시되었다. 차례대로 논의하기로 한다.

(1) 많은 土地가 外地人에게 넘어간 것에 대한 서운한 느낌

<나는 제주도의 많은 토지가 외지인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서운한 느낌이 든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반응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91.8%이고 부정적 반응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생지·성장지별로는 제주에서 출생·성장해서 계속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 (94.1%)이 가장 높게, 제주도 출신으로 10년이상 육지에 산 일이 있는 사람 (89.4%)과 육지에서 출생·성장해서 10년이상 제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 (89.8%)이 높게, 제주에서 출생·성장해서 10년미만 육지에 산 일이 있는 사람 (84.3%)이 비교적 높게, 육지에서 출생·성장해서 10년미만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 (70.0%)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출신 (92.8%)이 타지방 출신 (83.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제주도의 경제를 타지방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

<나는 제주도의 경제를 타지방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문항에 대해

서 전체 반응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88.7%이고 부정적 반응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제주도 주민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재 (98.2%)가 가장 높게, 고재와 고졸은 88%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출생지·성장지별로는 제주도 출신은 육지에서 산 일이 있던 없던 88.8%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육지에서 출생·성장해서 10년이상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81.4%)이 비교적 높게, 10년미만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 (56.7%)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출신 (90.4%)이 타지방 출신 (73.0%)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觀光産業의 發達에 따른 美風良俗이 없어지는데 대한 걱정

<나는 관광산업이 발달에 따라서 미풍양속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 걱정이 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반응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83.3%이고 부정적 반응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 (86.7%)가 여자 (79.4%)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대재 (92.9%)가 가장 높게, 대졸이상 (86.7%)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에서 출생·성장해서 계속 제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 (84.9%)이 가장 높게, 육지에서 출생·성장해서 10년미만 제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 (66.7%)이 가장 낮게, 그외는 80%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출신 (84.1%)이 타지방 출신 (75.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제주도의 開發政策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리

<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반응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65.0%, 부정적 반응이 10.3%,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24.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주민의 3분의 2정도가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소수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대재와 대졸이상 및 20대가 그러한 인식이 높고 강하며 대학생 (83.0%)은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要約 및 結論

경제활동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를 요약 정리해보면, 먼저 해녀활동에 대해서 제주도 주민들 대부분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고 느껴면서도 해녀들이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한 잠수활

동은 바람직하다는 생각과 해녀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금지 및 해녀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3분의 2정도이며 세대가 내려갈수록 긍정적 반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다음에 그외 경제활동에 대해서 보면, 제주도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이 밭에서 주로 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으며, 제주도 주민 중에 4분의 3정도가 제주도 사람들은 형식 보다는 실리를 중시하고 매우 부지런하며 마을 공동목장제는 특이한 제도이고 좋은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시한 반응결과를 요약해보면, 제주도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많은 토지가 외지인들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서운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제를 타지방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광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미풍양속이 많이 없어지는데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며,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소수인에게 유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도 3분의 2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 (85%이상)은 대학생과 공무원 및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 (79%)은 국졸이하, 기독교, 타지방 출신 및 무직이다. 특히 육지에서 출생·성장해서 10년 미만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60% 정도만이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제주도 출신이 타지방 출신 보다 긍정적 반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도 주민들중에 긍정적 반응이 높은 40대 이상은 타지방 출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 인식에서도 제주도 출신이 타지방 출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인으로서의 主人意識은 높다고 해석이 된다.